직업성질환 역학조사 55

타이어제조업의 직업성 질환(11) : 타이어제조업의 조직문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장 / 김 은 아

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이어제조업에서 발생한 심장성 돌연사에 대한 역학조사는 2007년 1년 동안 수행되어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항목에 대해 2008년에 후속 역학조사가 진행되었다.

후속 역학조사의 핵심적 사안은 두 가지였다. 첫째, 2008년 역학조사에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영국의 기준보다 높았던 고무흄의 상세한 성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둘째, 당시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해당 사업장의 조직문화에 대하여 질적조사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 기저질환이 많은 사업장 내에서 한국적 조직문화와 여가문화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보건관리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판단해 보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추가 조사는 국내 타이어제조업 3사를 대상으로 기획하였지만, 3사 모두 역학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행이 지지부진 하던 중 2008년 10월에 이르러서 1 개사만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타이어제조업의 조직문화와 보건관리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수행했던 조직문화에 대한 질적조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근로자의 보건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방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다. 사업장의 적극적인 도움이나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사상황이었으므로 회사 내의 안전보건관리자와 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내그룹에 대해 집중면접을 실시했으며, 동시에 퇴직한 산재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을 하여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기존 질적연구들에서 권장하는 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이 사업장의 조직문화는 통제적 조직구조와 생산을 경쟁적으로 장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는 생산성 향상에는 효율적이나 근로자의 건강관리행태를 지지하지는 못했다고 판단되었다. 사내 그룹과 퇴직한 산재신청 질병자 그룹에 대한 면접 결과, 두 집단 간의 조직문화와 직무특성에 대한 큰 시각 차이가 있었다. 사내 집중그룹은 조직문화와 직무특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퇴직한 질병자들은 재직 중 직무 경험에 대해 직무요구도가 높고 직무자율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사내 집중그룹의 경우 2007년 이전 상황보다는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많이 진술하였고, 퇴직한 질병자들은 4~5년 이전에 자신이 작업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 사내그룹이 2007년 이전 상황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로 보아 당시의 조직문화가 긍정적인 보건관리체계와 건강관리행태를 지지하는 환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분석해 볼 때, 이 사업장의 직무특성 중 고용안정성은 높고 직무요구도는 높지 않아 보이나, 직무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내그룹과 산재신청 근로자 그룹은 사내 보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직무특성 및 근로자건강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사내그룹과 퇴직자 그룹이 상이한 의견을 진술했다.

둘째, 역학조사 이전까지 이 회사에는 보건관리체계의 법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산업보건관리가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체계적인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분야의 전문 인력이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나, 2008년 이전에는 이 타이어 제조업체에는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이후에 산업간호와 산업위생 인력은 보강하였으나 산업의학 인력은 아직도 외부의 간헐적인 자문에 의존하고 있었다.

기초질환관리 및 교대작업에 의한 건강영향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부서 내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이러한 단계의 조직형태까지는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셋째, 2007년 이전에 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수준은 전문성이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심혈관계질환에 영향을 주는 야간작업, 교대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건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구역에 한의사가 고용되어 있었으나 직접 고용이 아니고 사내위탁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예방적인 산업보건사업보다는 질병치료, 물리치료 등 임상진료를 담당하였다.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의 주요 인력인 산업의학 전문의사나 산업위생기사를 고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자문한 근거는 없었다. 2007년까지 이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업무는 각 공장별로 촉탁직 간호사 2인이 담당하였으며, 대전공장의 경우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평균 근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혈관계질환의 촉발요인인 흡연과 음주에 대한 보건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근로자의 흡연율은 한국인 평균 흡연율보다 높았고, 사업장 차원의 금연운동도 시작단계이었다. 근로자의 음주율은 한국인 평균 음주율보다 높았다. 한편 조사 당시 산업보건인력을 보강하고 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향후 근로자 건강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다. 채용한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위탁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보건관리 개선을 위한 제언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결과에, 연구원은 이 사업장의 직무특성과 조직문화는 근로자 건강관리 행태 및 보건관리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체적인 산업보건관리를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이 회사 근로자들은 고혈압이나 과체중, 고지혈증 등의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건관리 없이는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조직문화나 보건관리체계의 특징으로 볼 때, 적극적인 보건관리를 통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더해 바람직하지 않은 교대형태나 과로, 고열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심장성 돌연사가 다수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러한 조직문화 조사를 토대로 공단 연구원은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첫째, 회사 내 산업보건 전문가 중심의 전담독립부서 구축 및 외부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

지식 교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우선, 공장 책임자가 주관이 되는 안전보건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중장기 보건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산업보건관리 서비스를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보건관리는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직접 참여하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내의 전문인력이 수행해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업보건 전담부서를 독립부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 등의 산업보건관련 전문인력과 일반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 검진 유소견자 관리, 건강증진 사업 등은 사내 전문가에 의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위탁을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동일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근로자 기초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근로자들의 기초 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에 대한 회사 차원의 건강문화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작업반장과 주임 등 실제 현장관리직의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제언하였다. 또, 건강증진을 위한 사내 운동동아리 활성화 등 근로자 자발적인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회사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하였다.

셋째, 관리자에 대한 산업보건 전문분야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산업보건관리에서 내부 인력의 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보건관리자들에게 새로운 산업보건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부 산업보건 전문기관의 활용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와 보건소 등 지역 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연계를 활발히 하여 보건관리의 신규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Kim EA, Park JS, KIM KH, Lee N, Kim DS, Kang SK. Outbreak of Sudden Cardiac Deaths in a Tire Manufacturing Facility: Can It Be Caused by Nanoparticles? Saf Health Work 2012: 3;58-66.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타이어제조공정의 작업환경 및 건강영향 역학조사 보고서. 2009.4. 인천.